

메이슨캐피탈 제3회 전환사채 발행 완료

안녕하십니까, 메이슨캐피탈입니다.

항상 저희 회사를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5월 28일 저희 회사는 제3회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금액은 17억원이고 만기는 3년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벤처회사에게 우호적인 발행시장 환경 및 회사의 낮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법인투자자가 인수함으로써 저희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됩니다.

미얀마 소액금융대출법인 (Microfinance Institute, MFI)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번 4월 18일 미얀마 연방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미얀마 금융감독기관(FRD)을 비롯한 양국 주요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업식을 하였습니다.

미얀마는 낮은 연체율과 인건비가 특징으로 소액금융대출에 적합한 시장입니다. 반면 최근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아졌습니다. 현지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당국의 영업인가 요건 강화로 추가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져 앞으로는 M&A를 통해서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사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 네피도를 기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네피도 및 경제 중심지인 양곤 지역에 추가로 지점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영업인력도 현재 13명에서 조만간 10명 이상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인수한 메이슨C&I 와 메이슨F&I도 현재 비용합리화 작업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사업안정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와 사업 및 투자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영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위해 렌탈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탈업 관련 사업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현재 영위

중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실적개선과 강도 높은 재무안정성 강화 활동으로 수익성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께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도자료 또는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직원 일동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